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5
WINTER
제74호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국살이 리얼톡
뿌리를 찾아 떠난 여정
원켈 글렌 칼라니

출입국 탐구생활
취업준비생 대상
이민행정 현장투어

출입국 in FOCUS
K-STAR 비자트랙

출입국 ON AIR
제12회 한마음 걷기축제
정부합동 고충상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공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록달록 아름답게 세상을 물들이던 낙엽이 지고, 어느덧 찬 바람 속에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본부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마주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며 국익과 통합, 인권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는 이민정책 추진에 힘써왔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심사 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공동체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제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외국인 역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인식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언어장벽과 복잡한 구제 절차로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실질적인 보호와 인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국민이 안심하고, 외국인이 존중받고,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일상에 온기와 평안이 가득한 겨울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ear readers,

The colorful autumn leaves that once painted the world so beautifully have fallen, and winter is fast approaching, bringing with it a chill that makes us long for warmth. As the year draws to a close,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heartfelt gratitude to our readers for your continued interest in and support of immigration policy.

Throughout this year,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has strived to advance immigration policies that achieve a balanced harmony of national interest, integration, and human rights, while addressing the diverse challenges posed by demographic changes.

Recently, concerns about the safety of our citizens have grown due to a series of criminal incidents in countries such as Cambodia, Laos, and Myanmar. In response, we swiftly implemented measures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our people, including strengthened travel advisories starting at the point of departure to raise awareness of potential risks. Domestically, to firmly address illegal activities that threaten public safety and social order, we carried out the 'Second Joint Government Crackdown on Undocumented Foreign Residents' in an effort to establish a fair and lawful system of residence for foreigners.

As Korea enters an era with over one million foreign workers, it is increasingl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ose living and working in our society are valuable members who deserve protection and respect. To help address the challenges faced by foreign workers—such as language barriers and complicated relief procedures—we have been offering integrated support through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since last October. This one-stop service brings together various agencies to ensure practical protection and the safeguarding of their human rights.

In the coming new year, we will continue to implement more effective policies to move towards a society where citizens feel safe, foreigners are respected, and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harmonize together.

We wish you warmth and peace throughout the winter season.

Thank you.

CONTENTS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5. WINTER / VOL. 74

통권 74호(비매품)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락처 02-2110-4019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KIS+pecial

06 한국살이 리얼톡

뿌리를 찾아 떠난 여정
(재외 항일 독립운동가 '신을노' 선생의 후손
원켈 글렌 칼라니)

10 출입국 탐구생활

취업준비생 대상 이민행정 현장투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14 심포 여행

역사와 산업이 숨 쉬는 도시, 창원

18 감동 한 스푼, 행복 두 스푼

재한 외국인 & 직원 미담 사례



06



26

KIS+tory

20 출입국 in FOCUS

K-STAR 비자트랙

24 정책 한눈에 쏙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종합 지원

26 출입국 ON AIR

제12회 수원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

30 공감 돋보기

K-콘텐츠,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다

32 세계인의 밥상

겨울을 녹이는 유럽의 식탁

KIS+hare

34 이슈 Pick

출입국·외국인 정책 주요 뉴스

36 출입국 궁금타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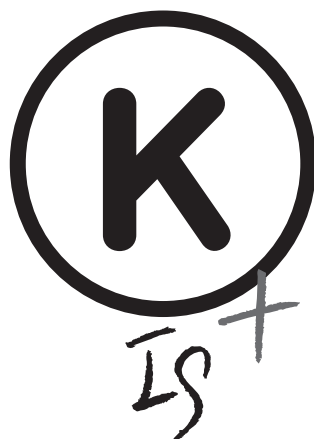
출입국·외국인정책 Q&A

38 SNS 핫클릭! + 독자 이벤트

본부 SNS 채널 / 독자 참여 코너

www.immigration.go.kr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법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서랍을 정리합니다.

고마웠던 이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내년에 쓰고 싶은 한 줄을 미리 적어봅니다.

겨울은 비우고 채우는 연습을 가르쳐 주는 계절입니다.

오늘, '수고했어'라는 따뜻한 말을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그 한마디가 새해의 첫 페이지를 밝히는 작은 빛이 되어줄 거예요.





Winkel Glen Kalani



더 생생한 인터뷰 내용을
보고 싶다면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하지만 문제는 비자였다. 어머니가 한국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글렌 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발급되는 F-4(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자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 이 상황을 계기로 그는 외가의 기록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미국 이민국의 기록을 뒤지고, 할머니의 육성 녹음을 듣고, 이민사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외가의 연대기를 하나하나 찾아나갔다.

글렌 씨의 외할아버지는 하와이에 정착한 이민 1세대였다. 하와이 도착 직후 막내딸 '신유도'가 불과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기록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외가의 뿌리를 뒤쫓는 결정적 자료를 발견했다. 외할아버지 신을노 선생이 1935년 중국 난징에서 조직된 조선혁명당 소속이었다는 미국 이민국 기록이었다. 조선혁명당은 여러 독립운동 단체가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결성한 항일 단체로, 신을노 선생은 1900년대 초 하와이로 이주한 뒤, 1943년부터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 총지부 집행위원과 정신부장으로 활약했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해 지원한 재외 독립운동가였던 것이다. 1955년생인 글렌 씨는 뉴욕에서 성장했지만, 예닐곱 살 무렵 가족과 함께 하와이에서 약 3개월을 머물며 외할아버지와 함께 지낸 기억이 있다. 그 시기는 신을노 선생이 세상을 떠나기 약 5년 전이었다.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처음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비자를 받고, 할아버지와 우리 가족의 뿌리를 확인하



▲ 신을노 선생과 함께한 어린시절

는 데만 마음이 쏠려 있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 변호사로부터 F-4 비자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후 지난 3·1절에는 외할아버지의 건국포장을 대신 받았고, 광복절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까지 받으며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시작된 여정이 결국 저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제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운명처럼 마주하게 된 대한민국

글렌 씨는 미국에서 촉망받는 사이클 선수이자 생물학·신경학을 전공한 심혈관 박사다. 대학원 시절 자전거 경주의 세계에 빠져든 그는 불과 1년 만에 최상위 그룹에 올라섰고, 2년 차에는 미국 최대 스테이지 레이스인 ‘쿠어스 클래식’에 출전했다. 이후 40년 동안 선수 생활을 이어오며 세계 마스터즈 챔피언십 10회 우승, 미국 내 전국 챔피언십 30회 우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다. 선수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콜로라도 스프링스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에서 올림픽 및 패럴림픽 선수들을 지도하기도 했으며,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심장 분야 연구로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말 그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인물이었다. 그런 그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빈자리가 있었다. K-POP이나 K-드라마에 관심이 없었음에도, 한국에 대한 미묘한 향수가 스며든 것은 2015년 교회를 통해 한국계 지인들을 만나면서부터였다.

“2016년 8월 15일이었어요.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 벨로드롬에서 코칭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한국 교회 분들이 광복절을 기념해 텐트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있던 유일한 한국 교회였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지금 돌아해보면 그 순간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너무 편안했고, 모두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어요.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한국인들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한국인들에게서 느낀 따뜻한 정, 그리고 어머니의 뿌리를 찾아보고 싶다는 호기심은 결국 글렌 씨를 한국행으로 이끌었다. 그는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준비했다. 친구들과 상의한 끝에 ‘신대현’이라는 한국 이름을 짓게 되었고, 한국에



korea



▲ 윈켈 글렌(신대현)과 살로메(신을노 선생의 딸)

서 머물 장소도 하나씩 찾아 나갔다. 글렌 씨는 이 과정을 떠올리며 “모든 것이 마치 정해진 길처럼 느껴졌다”고 회고한다. “처음에는 황대헌 쇼트트랙 선수를 좋아해서 ‘대헌’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 성함의 발음과도 비슷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은 이름이었는데, 그 사실이 알고 나니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피어난 삶, 제2의 여정이 시작되다

윈켈 글렌 씨는 한국에서 머물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일이 마치 운명처럼 이어졌다고 말했다. “춘천에 집을 구할 때부터 신기한 일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벨로드롬 경기장이 있는 지역이라 관심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 춘천이 제 전공 분야인 생명학과 관련된 바이오산업에 굉장히 힘을 쏟는 도시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전쟁 당시 중요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해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약 30일을 머문 뒤, 2022년 10월 1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귀국길에 오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회상한다. 그동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 자신에게 꼭 맞는 기후까지—한국의 모든 것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된 건 10년 남짓에 불과했지만, 그는 이곳에서 ‘집(Home)’과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 “한국은 세계에서든 손꼽히는 안전한 나라잖아요.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고 서로를 배려해요. 지갑을 떨어뜨리면 뒤에 오던 사람이 주워서 건네주고, 자리에 스마트폰을 두고 와도

꼭 찾아주려고 하죠. 입국 심사도 미국은 딱딱하고 사무적인데, 한국은 친절하고 꼼꼼해요. 그래서인지 한국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세상이 모두 한국처럼 친절하고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광복절, 글렌 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받는 순간 눈시울을 붉혔다. 뿌리를 찾아 걸어온 긴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감격도 있었지만, 희미한 기억 속에만 남아 있던 외할아버지와 깊은 연결이 더욱 명확해진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외할아버지 신을노 선생은 광복 이후 1955년 미국 시민이 되었고, 그해 글렌 씨가 태어났다.

그리고 70년이 흐른 지금, 글렌 씨는 외할아버지가 지켜낸 그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서사가 또 있을까. 한 가족의 역사가 대륙을 건너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벅찬 순간이었다.

이제 윈켈 글렌, 한국 이름 신대현 씨의 목표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이다. 현재 강원대학교 학생들과 한국어 수업을 듣기도 하며 꾸준히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그가 한국어 공부에 이렇게 깊이 몰두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와 희생정신을 본받아 한국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교육, 과학, 스포츠, 건강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한국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아름다운 나라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뷰 내내 밝은 미소와 진심 어린 웃음을 보여준 신대현 씨는 최근 여러 언론매체와 소통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KBS 프로그램 <이웃집 찰스> 출연을 위해 촬영 중이라고 전하며, 새로운 경험들에 대한 설렘과 감사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제2의 조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그는 앞으로의 삶을 이곳에서 보내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이제 신대현 씨의 하루는 대한민국에서의 설렘으로 시작된다.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애뜻하게 아끼는 그의 새로운 인생이 앞으로도 축복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취업준비생 대상 이민행정 현장투어

이민행정 현장 속으로 : 사회 새내기 청년들이 전하는 진짜 체험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주요 6개 출입국 관서의 업무 현장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민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하는 행사가 열렸다. 사회로의 첫걸음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초청해 출입국·이민업무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맞춤형 현장투어가 진행된 것이다. 실제 업무 흐름을 가까이에서 체감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다. 청년들의 열정과 호기심으로 뜨거웠던 '취업준비생을 위한 이민행정 현장투어', 그 생생한 현장을 함께 들여다보자.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선도하는 신(新) 출입국·이민행정
Innovative immigration services leading the global era of over 3 million foreign residents



취업준비생과 함께하는 이민행정 현장투어!



오후 2시, '취업준비생 이민행정 현장투어'의 시작 시간이 가까워지자 조금은 어색한 표정의 취업준비생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모여들었다. 간단한 인사와 일정 안내가 끝난 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따뜻한 환영 인사가 이어졌다. 반재열 청장은 "요즘 청년들이 겪는 취업 고민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고민을 덜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각 부서의 주요 업무와 시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진행된 뒤, 드디어 본격적인 투어가 시작되었다.



엄정한 법 집행을 원칙으로!

투어의 첫 일정은 사범과 방문이었다. 참가자들을 맞이한 강창모 주무관은 사범과의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사범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보호 및 강제퇴거 절차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체류외국인이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우에 따라 본국 송환까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강 주무관의 설명을 들은 뒤 참가자들은 단속된 외국인이 잠시 머무르는 보호실과 가족·지인과 연락할 수 있는 면회실도 둘러보며 실제 업무 절차를 가까이에서 확인했다.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법 집행의 원칙과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감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특별사법경찰!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하는 조사과에서는 정석순 주무관이 업무의 실제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주었다. "조사과는 불법체류자나 불법 취업 외국인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이나 비자 변경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정 주무관의 설명이 이어지자 조사업무의 절차와 현장 경험에 대한 참가자들의 질문이 잇따르며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정 주무관은 "조사과는 출입국 행정 중에서도 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라며,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궁금증을 차근차근 풀어주었다.



국적·통합과 Nationality & Integration Department 国籍統合科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



국적통합과에 도착한 참가자들을 황희옥 주무관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다. 황 주무관은 국적 업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신청하면 접수와 상담을 시작으로 면접심사, 실태조사, 적격심사까지 1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최종 국적허가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에서 결정하며, 허가가 확정되면 각 소속기관에서 국적증서수여식을 개최하죠. 이 모든 절차를 거쳐 한 명의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탄생하게 됩니다.” 전국 출입국기관 중 국적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설치된 곳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유일하다. ‘외국인을 국민으로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말처럼, 국적과 직원들의 얼굴에는 남다른 자부심과 책임감이 묻어나는 듯했다.

이어 사회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이지선 주무관이 외국인인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사회통합협의회, 이민자네트워크, 국적회복지원봉사단과 함께 ‘세계인의 날’, ‘한마음 건기축제’를 비롯해 산불·수해복구 등 여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와 한국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지요.”

앞서 방문했던 조사과가 불법행위 단속과 법 집행을 중심으로 한다면, 사회통합 업무는 이민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원과 소통이 중심이다. 서로 다른 역할과 분위기를 지닌 두 부서를 비교하며, 참가자들은 이민행정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다시금 체감할 수 있었다.

난민과 Refugee Department 난민 심사의 시작점!

난민업무를 소개하기 위해 조은경 주무관이 참가자들을 난민과로 안내했다. 난민과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난민 자격을 신청한 사람을 응대하는 부서다. 조 주무관은 “난민인정신청의 접수·심사,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을 맡고 있으며, 생계비·교육비 지원 같은 처우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난민심사팀은 국가별 정치·종교 상황을 고려해 아시아·중동·아프리카 권역별 전문 심사를 진행한다. 난민 면접실을 둘러보던 참가자들은 절차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고, 조 주무관은 “법무부 인증 난민전문통역인이 100% 통역을 지원하며, 신청인의 동의하에 면접 전 과정을 녹음·녹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관리과 체류민원실 Visa and Residence Division 管理課 滯留信訪室 외국인·민원의 심장부

이어, 장진옥 주무관이 관리과의 역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관리과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갱신이나 사증 발급 등 체류와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기본적인 체류 기간 연장부터 비자 변경,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 업무 범위가 넓어 직원 구성도 많습니다. 방문 목적에 따라 유도선을 배치해 민원 흐름을 정리하고, 하루 150건 이상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창구를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는 해외 우수 인재와 투자자를 위한 전용 창구로, 빠르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 고급 인재와 투자자의 한국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바로민원센터는 외국인등록번호 당일 부여, 각종 신고 및 증명서 발급 등 신속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민원을 담당하고 있다.

현직자에게 직접 듣는다! 출입국관리 공무원 이야기

업무 현장을 둘러본 참가자들은 이민행정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시험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추천해주실 강사가 있을까요?” 수험생 출신 참가자의 질문에 신규 직원들은 잠시 수험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다. 따뜻한 조언과 솔직한 경험담이 이어지자, 참가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쉽게 얻기 어려운 복지 제도, 교대 근무 체계, 채용 절차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교대 근무는 힘들지 않나요?”, “복지는 어떤가요?”, “근무지는 어떻게 배정되나요?” 직원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보와 조언을 아낌없이 전했다. 업무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들려줄 때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직원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일상과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순간이었다.

참가자들이 전하는 이민행정 현장투어의 리얼 후기!

김아진 ●

선배님들이 국민의 안전과 원활한 이민 행정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를 절실하게 느꼈고요. 저도 외국인과 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민행정에 기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엄정연 ●

미래 꿈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 같아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습니다!

이승주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분들의 모습을 직접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경을 지킨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장다연 ●

언젠가 공무원이 된다면 오늘 본 선배님들처럼 원활한 이민 행정과 이민 사회 구축을 위해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와 산업이 숨 쉬는 도시, 창원

겨울의 리듬을 걷다

바다와 산, 그리고 사람의 온기가 공존하는 도시 창원. 겨울이면 물안개와 바닷바람이 도시의 윤곽을 부드럽게 감싼다. 진해의 푸른 바다부터 주남저수지의 고요한 새벽, 예술이 깃든 창동의 골목까지. 이곳에서 겨울은 차갑지 않다. 도시의 산업과 자연,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의 리듬으로 어우러져 따뜻한 겨울 창원을 완성한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소개합니다!

김해·밀양·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등록,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각종 체류허가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국적, 사회통합 및 외국인 선원에 대한 출입국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도로 30

◆ 문의: ☎ 055-981-6000

바다의 도시, 빛으로 물들다 진해해양공원과 돌섬해상유원지

겨울바다를 따라 가는 길

창원은 산업과 낭만이 공존하는 도시다. 진해해양공원의 해상 산책로에서 조선소 불빛을 마주하고, 돌섬에서는 바다와 도시가 함께 그려낸 겨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짙은 바람과 붉은 노을, 그리고 바다 냄새가 계절의 온도를 채운다.

난이도 ★★★★★

거리 약 15km / 차량 약 30분

코스 진해해양공원 → 군함전시관 → 해상산책로 → 돌섬해상유원지



창원은 바다를 품은 도시다. 진해구로 향하면, 바다의 결이 도시의 숨결과 닮아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진해해양공원은 군항의 역사와 해양문화를 함께 품은 장소로, 방문객은 마치 시간의 파도 속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공원 입구에는 해양생태전시관과 군함전시관이 자리하고, 그 뒤로는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길이 열린다. 해상 산책로를 걸으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조선소의 크레인과 멀리 반짝이는 항만 불빛.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지만, 그 속에는 도시의 힘이 느껴진다. 철의 향과 바다의 짙내, 그리고 저녁 햇살이 섞인 공기. 그것이 바로 창원의 바다 냄새다.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돌섬해상유원지가 있다. 돌섬은 ‘돼지섬’이라는 뜻을 가진 작은 섬으로, 도시에서 배로 10분이면 닿는 가장 가까운 휴식처다. 섬에 도착하면 항만과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온다. 섬 안에는 조각공원과 산책로, 그리고 전망대가 이어져 있다. 겨울의 돌섬은 사람도 적고 바람은 차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창원의 진짜 표정이 있다. 도시와 바다, 산업과 자연이 한 프레임 안에서 공존하는 풍경. 바다 위로 비치는 공장 불빛은 낭만이 되고, 해질녘 붉게 물드는 하늘은 하루의 끝을 위로한다.

Jinhae
Marine Park

&

Dolseom
Seaside Amusement Park

자연이 품은 따뜻한 생명 주남저수지의 가창오리 군무

물안개로 깨어나는 겨울 저수지

주남저수지는 가창오리의 군무와 금빛 갈대가 어우러진 생명의 터전이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숨결이 느껴지고, 고요한 수면 위로 아침 햇살이 번질 때, 창원의 겨울은 따뜻함으로 완성된다.

난이도	★★★★☆
거리	약 20km / 차량 약 40분
코스	주남저수지 주차장 → 생태전시관 → 철새 탐조로 → 전망데크



겨울 창원의 아침은 물안개로 시작된다. 햇살이 저수지 위로 천천히 번지면, 하얀 김 사이로 새들이 날개를 털며 날아오른다. 주남저수지는 그 풍경의 중심이다. 이곳은 철새 도래지이자 창원의 대표 생태관광지로, 겨울이면 매서운 바람을 가르며 수천 마리의 가창오리가 수면 위를 스친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하나 없이 하늘을 뒤덮는다. 날갯짓의 곡선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그 아래에서는 잔잔한 물결이 반사된 햇살에 반짝인다. 한동안 숨을 멈추고 바라보게 되는 순간, 자연의 질서와 생명의 온기가 차가운 공기 속을 가득 채운다.

주남저수지는 단순한 철새 명소를 넘어 2008년 람사르 총회를 통해 세계의 주목을 받은 생태관광지다. 맑은 물과 갈대숲, 그리고 생태전시관이 어우러진 이곳은 겨울의 냉기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는 공간이다. 햇살이 비추면 물안개는 금빛으로 물들고, 새들은 다시 저수지 위를 돌며 하루를 시작한다. 고요하지만 살아 있고, 차갑지만 따뜻한 곳. 그것이 바로 창원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겨울의 온기'다.

Junam
Reservoir

&

Baikal Teal Flock Display



예술과 시간의 골목에서 만나는 도시의 온기 창동예술촌과 해양드라마세트장

산업의 도시에서 느끼는 따뜻한 리듬

창동예술촌의 골목길에는 예술가의 손끝에서 피어난 불빛이 있고, 해양드라마세트장에서는 바다와 전통이 맞닿은 풍경이 펼쳐진다. 겨울의 고요 속에서 창원은 여전히 살아 숨 쉰다.

난이도 ★★★★★

거리 약 10km / 차량 약 20분

코스 창동예술촌 → 중앙시장 → 해양드라마세트장

산업의 도시 창원에는 의외로 '느림'이 있다. 창동에 예술촌은 그 느림의 미학을 품은 골목이다. 한때 상점과 철물점이 있던 낡은 거리였지만, 지금은 예술가들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났다. 벽화, 공예, 사진, 도자기, 그리고 오래된 찻집들이 이어진 예술촌의 골목은 걷는 속도를 천천히 늦추게 만든다. 겨울의 예술촌은 고요하다. 가게의 유리문에 김이 서리고, 작업실 안에서는 작은 난로가 희미한 불빛을 낸다. 그 온도는 산업의 도시 창원이 가진 또 다른 '사람의 온도'다. 조금 더 남쪽으로 향하면 바다와 맞닿은 해양드라마세트장이 있다.

이곳은 드라마 촬영지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여행자들이 '시간의 바다'를 만나는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전통 가옥과 골목길이 재현된 세트장 뒤로, 진해의 바다가 잔잔히 펼쳐져 있다. 겨울 햇살에 반짝이는 파도와 오래된 지붕의 조화가 이색적이다. 이곳에 서면,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한 화면에 겹쳐 보이는 듯하다. 창원은 산업의 도시이면서도 예술의 도시이고, 겨울의 차가움 속에서도 생명이 살아 있는 도시다. 벚꽃길이 잠시 쉬어가는 계절, 하늘을 가르는 가창오리의 비상과 예술촌의 불빛은 이 도시가 여전히 '따뜻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준다.



도전에서 성장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따뜻한 안내자를 꿈꾸다

낯선 한국 땅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시작해 언어 장벽과 생활고를 겪었지만,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학업과 일에 매진한 구롱 산제이 씨.
이제 그는 이주민들의 든든한 멘토이자 우리 사회의 따뜻한 이웃이 되었다.
그의 아름다운 정착 이야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구롱 산제이
(GURUNG SANJAY, 네팔 출신 영주권자)



가족을 위한 선택, 학업으로 꿈을 넓히다

2004년,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기 위해 산업연수생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초기에는 낯선 환경과 문화 차이, 고된 노동으로 지치기도 했지만, 단순 노동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냉면 공장에서 일하며 틈틈이 대학 진학을 준비했고, 비자 변경 후에는 7년간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유학 시절 머물 곳이 없어 침터에서 생활하고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고단한 현실이었지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다짐으로 버텨냈습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든든한 이웃

아내와 함께 살게 되면서 심적 안정을 찾은 저는 통역 봉사를 시작으로 서울시 외국인 주민 대표자 등으로 활동하며 외국인들의 권익 향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주변 분들의 도움 덕분에 까다로운 영주자격 심사도 통과하여, 떨어져 지내던 아들을 초청해 온 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살 수 있는 꿈도 이뤘습니다.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현재는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하얀 눈꽃처럼 쌓인 칭찬

소복이 쌓이는 눈처럼 스며든 작은 배려가 우리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겨울 햇살처럼 따스한 감사 한마디를 전합니다.

분주한 공항에서 마주한 따뜻한 책임감,
강동훈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입국 과정에서 휴대폰을 분실해 보안구역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실물 센터에 문의해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뿐이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때 강동훈 주무관님께서 제 휴대폰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제가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항에서 겨우 승객 한 사람의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챙겨주신 세심한 배려와 책임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주무관님의 헌신적인 태도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From 진O익 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강동훈 주무관

“인천공항 입국장은 국적을 불문하고 늘 많은 분이 오가는 분주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긴 비행 여독으로 귀중품을 두고 가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규정상 유실물센터로 인계해야 하지만, 주인을 찾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에 ‘혹시라도 주인을 못 찾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늘 앞서곤 했습니다. 마침 이번에는 민원인께 소중한 휴대폰을 빠르게 찾아드릴 수 있어 저로서도 무척 다행스럽고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절차 속에서 빛난
전문성과 배려
박유진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사증 발급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 또한 방대한 과정이라 다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의 박유진 주무관님은 바쁜 업무 중에도 정확한 안내와 신속한 검토를 해주신 덕분에 불필요한 지연 없이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행정 처리를 넘어,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그 가족에게까지 큰 힘이 되어주신 주무관님의 세심한 배려와 친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From 윤O균 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
박유진 주무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는데, 이렇게 게시판에 글까지 올려주신 배려에 정말 감사합니다. 업무를 꼼꼼히 숙지해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현장 상황상 종종 지체될 때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7-8월은 계절근로 사증 업무가 많아 기다림이 길으셨을 텐데, 오히려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전국의 체류·사증 담당 직원분들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출입국 직원분께 저 역시 힘내시라는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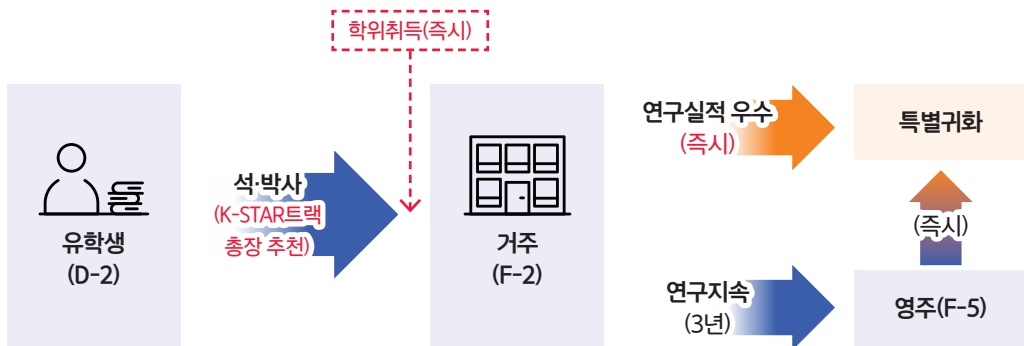


K-STAR 비자트랙, 과학기술 인재 정착의 새 길을 열다

찬란한 과학기술의 미래는 곧 인재에서 비롯된다. 법무부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과학기술 인재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K-STAR 비자트랙'을 도입했다. 이번 비자트랙은 외국인 우수인재가 한국에서 학업과 연구를 지속하며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과학 기술 분야의 성장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예방하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K-STAR 비자트랙



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학 총장에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추천된 우수인재는 취업 없이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 3년 후 영주(F-5) 자격 신청 가능

우수 연구실적을 입증하는 경우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특별귀화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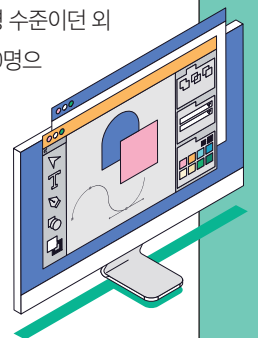
과학기술 인재 유출 방지, 대학과의 협력으로 대응

법무부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우수인재 유치 및 유출 방지'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유입된 과학기술 인재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새롭게 정비한 것이다.

기존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은 5개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졸업 유학생에게만 적용되었다. 반면 이번에 신설된 'K-STAR 비자트랙'은 그 대상을 총 32개 대학으로 확대해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 평가를 통해 지정된 대학의 총장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하

면, 해당 인재는 취업 요건 없이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후 3년이 지나면 영주(F-5) 자격 신청이 가능하며, 우수한 연구 실적이 입증되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특별귀화 신청도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간 1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인재(F-2) 규모가 약 500~6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국내 연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한국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과 함께 만드는 인재 정착 플랫폼

지난 9월 23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 부처 및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K-STAR 비자트랙' 도입 배경과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대학들의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

대학별 신청은 10월까지 접수되었으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5일 최종 선정 대학이 발표되었다. 평가 항목은 '유학생 관리체계', '교육 여건', '우수인재 지원 계획' 등이며, 특히 추천 이후 영주·귀화까지 연계되는 지속

적 지원 체계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반영되었다.

한편, 제도 운영은 3단계 평가 체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인 선정평가에서는 참여 대학의 운영 역량과 의지를 검증하고, 이어지는 자체평가를 통해 운영 실적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 단계에서는 참여 대학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추가 선정이 이루어진다.



과학기술 인재의 정착, 국가의 미래를 여는 열쇠

2023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10월까지 총 322명의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가 거주자격(F-2)을 부여받아 한국에서 연구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영주자격(F-5)은 거주자격(F-2) 3년 유지 조건에 따라 2026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K-STAR 비자트랙' 제도는 단순히 체류를 허용하는 수준

을 넘어, 과학기술 인재의 유입-정착-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인재 정책'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분야 인재가 한국에서 연구 역량을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체계 강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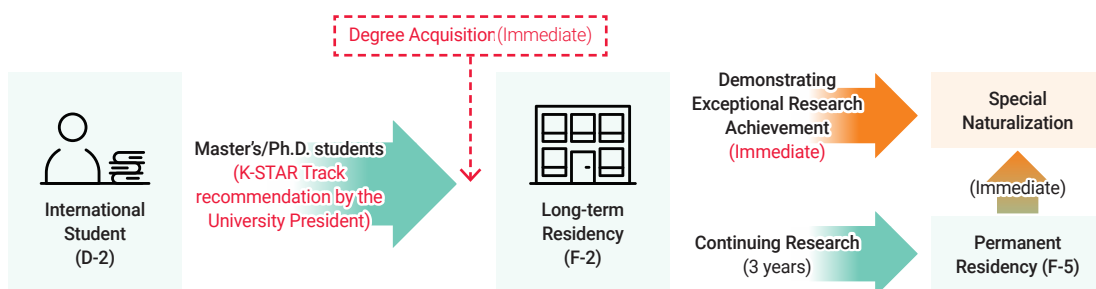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체류 외국인 현황(2025년 10월)

구분	거주(F-2)	
합계	322명	100%
파키스탄	48명	14.9%
인도네시아	33명	10.2%
베트남	33명	10.2%
카자흐스탄	19명	5.9%

구분	거주(F-2)	
미국	4명	1.2%
이탈리아	4명	1.2%
독일	3명	0.9%
기타	178명	55.3%

K-STAR Visa Track: Opening a New Path for the Settl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

The bright fu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begins with talent. To support thi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ntroduced the "K-STAR Visa Track," a new system designed to help outstanding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ionals—key drivers of national competitiveness—settle in Korea and focus on their research. This visa track enables exceptional foreign talent to continue their studies and research in Korea while transitioning smoothly toward permanent residency. It is expected to both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growth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and prevent the outflow of top-tier talent to other countries.



Presidents of universities selected through an evaluation process are authorized to recommend outstanding international students.

Recommended individuals are granted Long-term Residency (F-2) status immediately upon graduation, without the need for employment, and become eligible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F-5) status after three years.

Individuals who demonstrate exceptional research achievements are eligible to apply for Special Naturalization immediately, regardless of their length of stay in Korea

Responding to Talent Outflow in Partnership with Universities

To support the new government's key national initiative of attracting and retaining top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 the Ministry of Justice has established close cooperation with universities. As part of this effort, the visa system has been overhauled to enable outstanding individuals from abroad to settle more securely and integrate into Korean society as valued members.

The existing 'Fast-Track Program for Global Tal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is limited to graduates of the five institutes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DGIST, UNIST, GIST, and UST. In contrast, the newly introduced 'K-STAR Visa Track' broadens eligibility to include 32 universities, opening the door for more international students to benefit from the program.

If the president of a university selected through an evaluation process recommends an outstanding international student, that individual is granted Long-term Residency (F-2) status immediately upon graduation, even without employment. After three years, they become eligible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F-5) status. Furthermore, individuals who demonstrate exceptional research achievements are eligible to apply for Special Naturalization regardless of their length of stay in Korea.

Settl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 The Key to Unlocking the Nation's Futur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January 2023 through October 2025, a total of 322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ionals have been granted Long-term Residency (F-2) status and are continuing their research and daily lives in Korea. Applications for Permanent Residency (F-5) status will be accepted starting in 2026, once the three-year F-2 residency requirement has been fulfilled.

<Number of Foreign Residents Granted Status through the Fast-Track Program for Global Talent in Science and Technology(As of October 2025)>

Category	Total	Pakistan	Indonesia	Vietnam	Kazakhstan	USA	Italy	Germany	Others
Long-term Residency (F-2)	322	48	33	33	19	4	4	3	178
	100%	14.9%	10.2%	10.2%	5.9%	1.2%	1.2%	0.9%	55.3%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가 외국인 인권을 지켜드립니다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통합 보호망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폭행, 임금 체불,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을 한 통의 전화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0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부터 법률·심리·의료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STEP 1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폭행·임금체불·성폭력 피해까지 원스톱 지원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제 언어장벽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TEP 2

1345에 전화하면, 모든 기관이 연결된다

- 지역번호 없이 1345로 전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20개 언어로 출입국·체류·생활 정보를 안내하는 다국어 상담 창구다. 이제는 인권침해 피해가 확인되면 상담사가 피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기관으로 연결하게 된다.

- 범죄 피해: 법무부 '원스톱솔루션센터'
- 임금 체불, 산업재해, 괴롭힘·성희롱 피해: 근로복지공단, 지방고용노동청
- 고용제도 상담: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STEP 3

1345가 외국인 피해자의 든든한 조력자로

폭행 피해 중국 국적 노동자: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소송 구조 및 치료비 지원 안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피해자국선번호인 법률 상담, 치료 지원 안내

☎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전화 한 통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STEP 4

산업 현장 인권침해, 사전에 막는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다국어 '인권 보호 정보'를 문자와 안내물로 제공한다.

- 비자 신청·입국심사·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등 과정에서 인권보호 정보 다국어 안내
- 사업장·숙소에는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 게시
→ 사업주가 사증발급신청서 신청 시 안내문 게시 여부 반영 예정

STEP 5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전화: 지역번호 없이 1345 🗣 언어: 20개국 다국어 서비스

🕒 운영시간: 평일 09:00~22:00(18:00 이후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만 안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상담을 위한 대한민국 공식 창구,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연락하세요.

Do You Need Help?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Protects the Human Rights of Foreigners

An integrated safety net has been established to support foreign workers facing challenges due to language barriers and lack of access to information. Centered around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the Ministry of Justice has developed a system that allows foreign workers to receive immediate assistance with just one phone call for issues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assault, unpaid wages, and sexual violence. Offering counseling in 20 languages,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serves as a one-stop support system—fully equipped to handle everything from damage reports to legal, psychological, and medical assistance.



STEP 1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Protecting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One-Stop Support for Assault, Unpaid Wages, and Sexual Violence

To respond swiftly to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foreign worker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established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centered around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Now, with no language barriers, help is just one phone call away.

STEP 2

Call 1345 to Connect with All Relevant Agencies

- Just dial 1345 without an area code!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is a multilingual help desk providing information on immigration, sojourn, and daily life in 20 languages. Now, if a human rights violation is identified, counselors will connect the caller to the appropriate agency based on the type of damage.

- **Crime: Connect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One-Stop Solution Center'**
- **Overdue Wages, Industrial Accidents, Bullying/Sexual Harassment: Connected to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s**
- **Employment System Consultation: Connected to HUG KOREA,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TEP 3

1345: A Reliable Ally for Foreign Victims

Case 1. Chinese Worker - Victim of Assault

Connected to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for legal consultation, litigation support, and guidance on medical expense assistance.

Case 2. Female Victim of Digital Sex Crime

Referred to a public defender for victims for legal consultation and support with medical services.

☎ "Victims facing difficulties due to language barriers can now get help with just one phone call."

STEP 4

Preventing Workplace Human Rights Violations Before They Occur

The Ministry of Justice provides multilingual human rights protection information to both foreign workers and employers through text messages and brochures.

- **Multilingual guides are distributed during the visa application process, entry inspections, registration, and stay extension procedures.**
- **A "Guide to Protecting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is posted in workplaces and dormitories.**

⇒ Whether this guide is properly displayed will be taken into account when employers apply for a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

STEP 5

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for Foreign Workers

- ☎ Phone: Dial 1345 (no area code needed) 🗣 Languages: Support available in 20 languages
 - 🕒 Operating Hours: Weekdays 09:00~22:00 (Only Korean, English, and Chinese available after 6 PM)
- The official Korean government channel for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 workers. If you need assistance, please contact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at 1345.

2025년 제12회 수원한마음 걷기축제

12th Walk Together Festival in Suwon

정부합동 고충상담

출입국 ON AIR

출발
START

출발
START



성곽길을 물들인 가을, 그리고 따뜻한 동행

제12회 수원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

내·외국인이 함께 고즈넉한 성곽길을 걸으며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제12회 수원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이 수원 화성 행궁광장을 따뜻하게 채웠다. 성곽길을 따라 이어진 가을 풍경 속에서 참가자들은 걷기의 즐거움은 물론, 다채로운 공연과 색다른 체험 행사까지 누리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함께 어울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가을 추억이 만들어졌다.



가을 아침을 활짝 연 화합의 정신

지난 10월 25일, '제12회 수원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이하 수원 한마음 걷기축제)'이 수원 화성 행궁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내·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어울리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 재한 외국인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서울에서 이어져 온 이 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과 수원 두 곳에서 개최됐다. 개최 지역을 확대하면서 더 많은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고, 그만큼 행사의 의미와 즐거움도 널리 전해졌다.

수원 한마음 걷기축제에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행사 당시 국적·통합정책단장)을 비롯해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서석주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등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백혜련·김영진·김승원·염태영·김준혁 국회의원, 김춘호 사단법인 수원사회통합협의회장, 양해규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장 등 지역 사회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빛냈다. 총 1,200여 명의 내·외국인 참가자들은 배번호를 가슴에 붙이고 행사장을 여유롭게 둘러보며 환담을 나눴다. 그러다 개회식이 곧 시작된다는 사회자의 안내가 울리자, 사람들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자연스레 무대 앞으로 모여들며 축제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다.

본격적인 개회식에 앞서 열린 오프닝 공연은 '내·외국인의 화합'이라는 축제의 취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무대였다. 카메론계 프랑스인 소리꾼으로 잘 알려진 마포 로르 씨가 <흥보가>



의 '돈타령'과 <춘향가>의 '사랑가'를 구성지게 불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특히 '사랑가'는 한국어와 프랑스어 가사를 섞어 부르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국적과 문화가 다르더라도 마음을 모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깊이 전했다.

뒤이어 환영사에 나선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행사 당시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정조대왕의 따뜻한 애민정신과 혁신적인 개혁 의지가 살아 숨 쉬는 수원 화성행궁에서 행복한 가을 주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에게 힘찬 시작을 알렸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역시 "7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수원에서 한마음 걷기축제가 열리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이번 행사가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수원 지역 국회의원 5명과 김춘호 사단법인 수원사회통합협의회장은 "다국적·다문화 시대를 맞아 모든 참가자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환영사와 축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어린이 외국인 20명에게 제단법인 수원FC가 후원한 사인볼을 전달하는 특별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각국의 전통의상을 곁게 차려입고 무대에 오른 아이들은 해맑은 미소로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며, 참가자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했다.

행복 깃든 걷기, 즐겁고 유익한 체험

박성희 대한리드믹요가협회장이 이끄는 체조팀과 함께 흥겨운 음악에 맞춰 준비운동을 즐긴 참가자들은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출발 지점의 에어아치 앞으로 이동했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인 ‘함께 걷는 발걸음, 하나 되는 마음’을 힘차게 외친 뒤, 성신사·서장대·정조대왕 동상으로 이어지는 2.5km 화성 성곽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며 서로 어울리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직장 동료와 부부, 아이를 동반한 가족, 부모님과 함께한 가정까지 다양한 구성의 시민들과 외국인 1,200여 명이 줄지어 걷는 모습은 장관 그 자체였다. ‘호심 깊은 정조대왕이 아버지의 묘소인 현릉원에 행차할 때도 이런 풍경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웅장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한 참가자는 “축제에 참여하려고 전날 인근에서 묵었는데, 교통비와 숙박비가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정겹고 알찬 행사였다”며 엄지를 치켜올렸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화재가 어우러진 화성행궁 일대의 가

을 풍경을 마음껏 즐기며 한 시간가량의 산책을 마친 참가자들은 행궁광장 곳곳에 마련된 체험 부스로 발길을 옮겼다. 포토월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수원문화재단 수원전통문화관을 비롯한 14개 기관이 준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기념품을 받아 들고 활짝 웃는 참가자들도 곳곳에서 눈길을 끌었다.

출입국, 비자, 취업, 건강, 안전보건 등 재한 외국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마련된 분야별 상담 부스에도 많은 참가자들이 발걸음을 멈췄다. 특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부스에서는 가상현실(VR) 기기를 통해 산업재해 현장을 간접 체험해보고, 사고 예방법과 대응 요령을 배워보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다. 직접 체험에 참여한 한 외국인 참가자는 “지금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또 사고를 피하기 위해 평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소감을 전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나라’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수원 한마음 걷기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축하 공연과 경품 추첨이 이어졌다. 먼저 고전무용을 전공한 지연아 학생이 태평성대와 평화를 기원하는 전통 춤 ‘태평무’를 선보이며 우리 전통예술의 품격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다. 이어 김정권, 이정은, 룡원진, 김현욱, 최희윤으로 구성된 오페라·뮤지컬 메

들리팀이 무대에 올라 ‘지금 이 순간’, ‘네순 도르마(Nessun Dorma)’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곡들을 30여 분간 연달아 들려줬다. 힘 있는 목소리와 화려한 무대가 어우러지며 축제의 분위기는 마지막까지 뜨겁게 달아올랐다.

축제의 마지막 무대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직원과 지역 이민자로 구성된 해피스타트합창단이 장식했다. 모국의 전통의 상을 곱게 차려입은 단원들은 오페라·뮤지컬 메들리팀과 함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아리랑’을 완성도 높게 들려주며 큰 박수를 받았다. 관객들의 앵콜 요청에 화답한 합창단은 마지막 곡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선택했다. 함께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마음을 담아 부른 이 노래는 현장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축제의 감동을 더욱 진하게 남겼다.



공연이 마무리된 뒤 이어진 경품 추첨 이벤트에서는 다양한 경품이 등장해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사회자와 내·외빈이 당첨 배번을 부를 때마다 환호와 아쉬움이 교차했지만, 누구든 당첨되면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따뜻한 풍경이 이어졌다. 특히 자신의 배번이 불렸음에도 경품을 다른 외국인 참가자에게 흔쾌히 양보한 한 시민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내·외국인의 화합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는 것을 다시 느꼈다”며 “한국에 온 모든 외국인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순간은 제12회 수원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이 추구해 온 가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자, 행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실감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K콘텐츠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다

음악과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의 열풍은 이제 일상을 채우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2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해외한류실태조사'에서는 한국 문화 콘텐츠가 꾸준한 호감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K-POP과 한식을 비롯해 뷰티·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



한류 경험자 10명 중 7명 한국 문화콘텐츠에 호감

한류의 확산은 이제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6개국의 한류 경험자 가운데 10명 중 7명(68.8%)이 한국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호감을 나타냈다. 호감도가 특히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86.3%), 인도(84.5%), 태국·UAE(83.0%), 베트남(8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2년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던 국가들과 동일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호감도가 나타났다. 프랑스(11.4%), 이탈리아(11.1%), 일본(10.3%)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응답이 10%를 넘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줬다. 또한 2022년과 비교했을 때 뷰티(Δ 2.1%p)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0.6~3.4%p가량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오징어 게임>을 계기로 높은 관심을 보였던 미주·유럽 지역에서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세를 나타냈다. 흥미로운 점은 호감 콘텐츠의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까지만 해도 음식, 뷰티, 패션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2020년 이후로는 드라마·영화·예능 등 영상 콘텐츠가 꾸준히 3위권 안에 오르며 한류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 국가별 K-콘텐츠 호감도 •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86.3%	프랑스 11.4%
인도 84.5%	이탈리아 11.1%
태국·UAE 83.0%	독일 11.0%
베트남 82.9%	스페인 10.8%
말레이시아 78.0%	아르헨티나 10.5%

한국 하면 떠오르는 첫 이미지, 7년째 'K-Pop'

전 세계인이 한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하는 이미지는 단연 K-POP이었다. 조사 결과, 7년 연속 K-POP(17.2%)이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한국 음식(13.2%), 드라마(7.0%), IT 제품·브랜드(6.3%), 뷰티제품(5.2%)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다. 특히 드라마는 매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3년 한 계단 상승해 3위에 올랐고, 과거 상위권을 차지하던 IT 제품·서비스, 북한·북핵, 한국전쟁 등의 이미지는 점차 뒤로 밀리거나 순위권 밖으로 사라지는 추세다. 그 자리를 K-POP과 드라마, 한국 음식 등 한류 관련 이미지가 견고하게 대체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변화는 뷰티제품이다. 2014~2015년 5위를 기록한 뒤 한동안 순위권에서 사라졌지만, 2023년 다시 상위권에 진입했다. 특히 뷰티 경험이 많은 여성과 20~30대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K-뷰티가 해외에서 재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성별에 따라 떠올리는 '한국 이미지'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여성은 K-POP(19.6%), 드라마(8.6%), 뷰티제품(8.3%), 한국 음식(13.8%) 등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이미지를 더 많이 선택한 반면, 남성은 IT 제품·브랜드(7.9%), 태권도(5.0%), 자동차(5.3%), 스포츠·스포츠 스타(2.1%) 등 비(非)문화콘텐츠 분야에서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 한국 연상 이미지 과거와 현재 •

2014년

1 드라마 18.3%	2 K-POP 14.9%	3 한국음식 14.5%	4 전자제품 14.0%	5 한국전쟁 6.7%
-------------------	---------------------	--------------------	--------------------	-------------------

2024년

1 K-POP 17.2%	2 한국음식 13.2%	3 드라마 7.0%	4 IT제품/브랜드 6.3%	5 뷰티제품 5.2%
---------------------	--------------------	------------------	-----------------------	-------------------

• 성별 상대적 비교 1위 •



여성
K-POP

19.6%



남성
IT제품/브랜드

7.9%

한국산 제품·서비스, 절반 이상이 '구매의향 있다'

한류 경험자들에게 한국산 제품·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구매 의향을 묻은 결과, 절반 이상인 50.7%가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36.2%는 '보통', 13.1%는 '구매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국가별로 보면 이집트(75.6%)와 사우디아라비아(73.0%)를 포함한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구매 의향이 특히 높았으며, 반대로 일본(21.3%)을 비롯한 유럽과 미주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일본은 '구매 의향 없음' 응답이 41.7%로, 다른 국가보다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아르헨티나, 캐나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는 '보통' 응답 비율이 '구매 의향 있음'보다 높아 전반적인 구매 의향이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

성별에 따른 구매 의향은 큰 차이가 없었다. 남성과 여성의 '구매 의향 있음' 응답 비율은 각각 50.2%, 51.0%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구매력이 높은 30~40대의 구매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0대와 40대는 각각 54.5%, 53.6%가 '구매 의향 있음'이라고 답해 다른 연령층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반면, 10대와 50대는 각각 16.1%, 17.0%가 '구매 의향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계 문화 속에서 실질적인 소비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인의 일상과 만날 것으로 기대된다.

구매의향 국가별 순위

이집트 75.6%

사우디아라비아 73.0%

UAE 72.9%

베트남 72.1%

인도 70.1%

구매의향 물품 순위

식품 64.7%

화장품 54.0%

의류 52.8%

가전제품 52.7%

휴대폰 51.8%

겨울을 녹이는 유럽의 식탁

유럽의 겨울은 식탁 위에서 가장 따뜻하게 빛난다.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마다 고소한 치즈 향과 뜨끈한 수프 냄새가 퍼지고, 오래 끓인 스투와 갓 구운 빵 한 조각이 차가운 하루를 단숨에 녹여 준다. 유럽의 음식은 허기를 채우는 한 끼를 넘어, 오랜 역사와 삶의 방식이 깃든 하나의 문화다. 이번 겨울, 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가 들려주는 유럽 겨울의 맛 여행을 함께 떠나본다.

유럽의 식탁에 담긴 겨울의 철학

'유럽 음식'이라고 하면 화려한 미식의 세계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그 핵심에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식사'의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을 데워주던 국물 요리, 가족이 모여 둘러앉아 먹던 치즈 요리, 축제를 기념하며 정성껏 구워내던 오븐 요리까지. 프랑스의 스투, 이탈리아의 라자나, 스위스의 풍두는 각 나라가 기후와 풍토, 생활 방식에 맞춰 발전시켜 온 대표적인 겨울 음식이다. 그 안에는 유럽이 지켜온 전통의 온기와 여유의 미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보프 부르기뇽 (Boeuf Bourguignon)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을 대표하는 겨울 스투로, 소고기를 레드와인에 채소와 향신료를 더해 오래도록 끓여 완성하는 요리다. 본래는 농부들의 소박한 가정식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프랑스 전통의 깊은 풍미를 상징하는 정통 요리로 자리매김했다. 레드와인의 은은한 산미, 진하게 우려난 고기의 감칠맛, 부드럽게 스며드는 채소의 식감이 어우러지며 프랑스 겨울 특유의 낭만을 한 그릇에 담아낸다. 식탁 위에 천천히 퍼지는 따뜻한 향은 오랜 시간을 들여 음식을 완성하는 프랑스식 여유와 삶의 미학을 그대로 느끼게 한다.



라자나 (Lasagna)

겹겹이 포개진 파스타 면 사이로 고기 소스와 베샤멜 소스, 치즈가 풍성하게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오븐 요리다. 라자나의 뿌리는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중세 시대에는 귀족 가문의 축제 음식으로 사랑받았다. 오늘날에는 이탈리아 가정의 식탁을 대표하는 국민 요리로 자리 잡았고, 특히 겨울철에는 구워낸 치즈의 고소한 향과 푸짐한 재료가 든든한 한 끼를 선사한다. 한입 베어 물면 사르르 녹는 치즈의 따뜻함이 집안 가득 온기를 채우고, 식탁 위로 번지는 치즈 향과 오븐의 열기는 이탈리아 겨울 저녁의 정겨운 풍경을 완성한다.





퐁듀(Fondue)

스위스 알프스의 매서운 겨울을 녹여주던 전통 치즈 요리로, 에멘탈과 그뤼에르 치즈를 화이트와인과 함께 천천히 녹여 빵이나 채소를 찍어 먹는 방식으로 즐긴다. 본래는 눈 덮인 산속에서 저장 식품으로 겨울을 건디던 목축민들의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사랑하는 겨울 별미가 되었다. 따뜻한 냄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둘러앉아 웃음과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퐁듀는 단순한 요리를 넘어 사람을 이어주는 '온기'가 된다. 치즈가 사르르 녹으며 퍼져 나가는 향은 차가운 바깥 공기와 대조적으로 스위스 겨울의 따뜻함을 그대로 품고, 식탁 위에 아늑한 휴식을 선물한다.



+ 집에서 만들어보는 유럽의 겨울 음식 +



프랑스의 작은 휴식, 프렌치 어니언 수프(French Onion Soup)

겨울이 깊어질수록 더 생각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따뜻한 수프. 양파를 버터에 천천히 볶아 캐러멜처럼 단맛을 끌어낸 뒤, 육수와 와인을 더해 끓이면 은은하고 깊은 풍미가 완성된다. 여기에 바게트와 치즈를 올려 오븐에 구워내면, 한입마다 부드러운 식감과 찹조름한 치즈 향이 입안을 가득 채운다. 차가운 겨울날, 프렌치 어니언 수프 한 그릇은 마음까지 데워주는 작은 위로가 된다. 오래 줄인 양파의 달콤함이 겨울 저녁의 피로를 녹이고, 따뜻한 향이 부엌 가득 퍼지며 작은 프랑스식 휴식을 선물한다. 천천히 식탁에 오르는 그 한 그릇이 오늘 하루를 가장 포근하게 감싸준다.

◎ 소요 시간: 40분 내외

◎ 난이도: 중하 (★★★☆☆)

◎ 주요 재료: 양파 800g / 무염 버터 30g / 올리브오일 1큰술, 화이트와인(드라이) 120ml / 소고기 육수 1L / 바게트 8조각 / 그뤼에르 치즈 150g / 중력분 1큰술 / 월계수잎, 소금

만드는 방법

- ① 냄비에 버터와 올리브오일을 녹인 뒤, 양파와 소금을 넣고 갈색이 돌 때까지 천천히 볶아 낸다.
- ② 화이트와인을 붓고 중불에서 2~3분 끓여 알코올을 날린 뒤,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때까지 졸인다.
- ③ 소고기 육수와 월계수잎을 넣고 약불에서 10~15분 끓이며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다.
- ④ 오븐을 220°C로 예열한 후 바게트 8조각을 양면 5~6분간 바삭하게 굽는다.(토스터 사용도 가능)
- ⑤ 오븐용 그라탱 볼(또는 머그)에 수프를 담고, 바게트 2조각씩 띄운다.
- ⑥ 그뤼에르 치즈를 듬뿍 올린 뒤 220°C에서 3~5분, 치즈가 녹고 가장자리가 노릇해질 때까지 굽는다.



2025
WINTER
Vol.74KIS
NEWS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0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신임 본부장 취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월 8일 차용호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임용하였다. 차용호 본부장은 UNHCR 본부 선임정책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통합정책단장 등 해외, 본부 및 일선 현장을 두루 거친 출입국·이민행정 전문가이다. 차용호 본부장은 출입국·외국인본부를 기존의 외국인 관리 기능을 넘어, 최고급 인재 유치와 이민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이민정책을 새롭게 설계하고 실행하는 중심기관으로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02
2025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 실시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체류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기관과 함께 ‘25. 9. 29.~12. 5.까지 ’25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분야는 건설업, 배달·택배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마사지·성매매 등 미풍양속 저해 업종이다. 또한, 불법체류 유발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03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하였다. 개정 전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04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강화

법무부는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 대상으로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국가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되어 취업사기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적 안내가 이루어진다. 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탑승게이트 앞에서는 항공사와 협조하여 라오스·미얀마행 항공기를 탑승하려는 국민에게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여, 여행이나 취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국민이 출국 이전부터 현지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현지 경찰청 연락처, 대한민국 대사관 및 외교부 영사콜센터 긴급 연락처도 함께 안내한다.

05 인천공항 입국장에 '자동출입국 이용등록 및 전용 심사구역 설치' 시범 운영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번 시범 운영은 '25. 11. 3.~26. 1. 31.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자동출입국 사전등록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운영시간 : 09:00~21:00).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를 통해 여행 편의성 향상과 입국심사장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범운영 시작 후 첫 자동출입국 이용 등록자

06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025년 12월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 **시행 기간** '25. 12. 1.(월) ~ '26. 2. 28.(토)

☒ **대상자** 시행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예외)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 12. 1. 이후 불법체류자

☒ **조치 내용**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 하는 전담반(주요 3개 국으로 한정) 포함

자진출국 사전 신고
(출국 3~10일 전)

➡

범칙금 면제 및 유예 제정
(출국 당일)

➡

자진출국

※ 범칙금 면제 대상: (국외입국 1345, 형사범)

☒ **안내 문외**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외입국 1345, 형사범)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immigration.go.kr)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i-korea.go.kr)

출입국·외국인 정책, 이것이 궁금해요!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사례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알아보자.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재한외국인의 원활한 정착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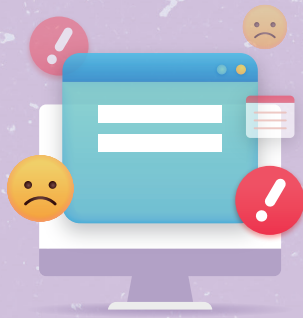
이용 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45

상담 시간: 평일 09:00~22:00

상담 언어: 한국어 포함 **20개국 언어*** 안내
(18:00 이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 안내)

*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몽골어, 인니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도

#게스트하우스 #여행

Q.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외국인 손님이 왔는데, 지인이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꼭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같은 감염병 및 테러 위기 상황에서 국내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도를 2020년 12월 10일 도입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업자는 법무부 고시에 의해 숙박신고제도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외국인으로부터 여권 등을 제공받아 숙박신고시스템을 통해 단기체류외국인의 숙박정보를 법무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2시간 이내 신고 #숙박신고제도

#‘관심’, ‘주의’ 단계

Q. 요즘 숙박신고제 얘기를 종종 듣는데요, 모든 때에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감염병이나 테러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당되나요?

A. 감염병의 경우 ‘관심’ 단계, 테러의 경우는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숙박신고자료가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기체류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 발령 12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시기에는 숙박신고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보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상향되며, 숙박신고제 적용 여부는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예약 #예외 대상자

Q. 저는 한국 회사에 취직해서 근무 중인데요. 다음 달에 체류기간이 만료돼서 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가려면 꼭 방문예약을 해야 하나요? 그냥 가까운 사무소에 직접 가서 접수하면 안 될까요?

A.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 2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및 신고,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예약 예외 대상자도 있습니다.

※ 예외 대상자 : 임신부(배우자 포함), 출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여성, 영아(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장애인(장애 1~3등급),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긴급한 병원치료를 방문예약이 불가능한 외국인 등

#기업 맞춤형 인턴십 #외국인 대학생

#TOPIK 2급

Q. 저는 태국 대학에 다니고 있고, 졸업 후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게 꿈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법무부가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이라는 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한가요?

A.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 대상자 요건은 첫째, 한국 기업과 산학협력을 맺고 후원하는 현지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석·박사 포함)으로, TOPIK 2급 이상을 취득한 학생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지 한국기업 근무 중인 전문인력으로, 특정활동(E-7-1, E-7-2) 자격의 77개 직종 분야에 국내 본사 인턴십에 참여 예정인 사람입니다.

※ 자세한 대상자 요건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핫클릭!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immigration_1345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가 있다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전화하세요!



전자여행허가제(K-ETA),
어렵지 않아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하시는 외국인이
라면 꼭! 신청해야 하는 필수 절차, K-ETA
복잡하다고 느끼셨나요? NO!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안전한 출국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immigration.kr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납치·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출국을 위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공존 라운지①

독자 이벤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소식지 <공존> 2025년 겨울호를 보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가장 재미있는 콘텐츠, 유용한 정보, 아쉬웠던 점 모두 좋습니다. <공존>은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여 기간: 2026년 1월 2일(금)

참여 방법: 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스타그램 or 페이스북 or 유튜브 계정 팔로우(구독)!

② 인스타그램 or 페이스북 공존 이벤트 게시물 or 유튜브 <공존> 티저영상 게시물에 '좋아요'

③ 인스타그램 or 페이스북 or 유튜브 채널 공존 이벤트 게시물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벤트 혜택: 독자 의견을 남겨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2026년 1월 7일(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인스타그램 or 페이스북 or 유튜브 계정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존 라운지②

퀴즈 타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소식지 <공존> 2025년 겨울호를 읽고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이번 호 콘텐츠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Quiz

법무부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과학기술 인재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 [] '을/를 도입했다.

- ① K-Pop 비자트랙 ② Top-STAR 비자트랙
- ③ K-STAR 연계트랙 ④ K-STAR 비자트랙

참여 기간: 2026년 1월 2일(금)

참여 방법: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서 <공존>에 관한 독자 의견과 퀴즈 정답을 남기면 참여 완료!

정답자 발표: 2026년 1월 7일(수) 개별 안내



참여하기



외국인 인권침해 대응 안내



인권침해 피해를 받았다면 침묵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신고·상담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 폭행, 범죄피해 신고(경찰) **112**
- ☎ 외국인종합상담(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hikorea.go.kr**
- ☎ 범죄피해(원스톱 솔루션 센터) **1577-1701**
- ☎ 외국인력 권익보호, 고충상담(외국인인력상담센터) **1577-0071**
- ☎ 이주여성 피해 신고(다누리콜센터) **1577-1366**



법무부



Human Rights Support for Foreigners



If you have suffered a human rights violation, do not remain silent-report it.
You will not face any disadvantages for reporting or seeking counseling.

- ☎ Assault/Crime Report(Police) **112**
- ☎ General Counseling for Foreigners(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hikorea.go.kr
- ☎ Crime Victims(One-Stop Solution Center) **1577-1701**
- ☎ Foreign Worker Rights Protection, Counseling(HUG KOREA) **1577-0071**
- ☎ Emergency Support Center for Migrant Women(Danuri Helpline) **1577-1366**



Ministry of Justice

